개혁III,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

(하박국 3:16~18)

1.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2.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3.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개혁III,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개혁III,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웃 교회에서 교민들의 마음에 먹구름을 끼게 하는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 두 딸이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정도로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아니라 독실한 신앙의 집안으로 인식되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다니며 반주를 했고, 부모님은 교회 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살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던 일이 파산하여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산은 충격적이고 참혹한 일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조차 가족 동반자살을 했다는 점에서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롯데그룹의 2인자가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분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대형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자살한 연예인들의 이름이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집사나 장로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증빙자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찾아와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눈물을 거두고 참된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진정한 실패가 아님을 알

게 하고, 또한 세상적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알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공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유일하게 안식을 얻고 웃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욥은 세상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침을 흘리며 갖고 싶어 하던 모든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 세상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한 경건하게 살았던 욥조차도 마음이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더라도 서로 묶여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욥은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점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돈을 잃어버린 것이 잃은 것이 아닌 게 되고, 건강을 상실한 것이 상실이 아닌 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던 돈과 건강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 등을 사소하게 느끼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상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교회에 온 자들에게, 그 실패를 교회 안에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세상적인 번영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믿음의 정도가 곧 세상적인 번영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과 번영이 믿음의 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한 교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오명을 벗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지 못한 죄인이라는 최종적인 명패를 하나 더 얻게 되는데,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세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획득 경쟁에서 패배한 교인들의 단죄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살을 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바탕에 있었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리새인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교인들은 이중으로 패배자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가치 획득에서 실패하게 되면 한 번의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어 교회에 온 교인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믿음이 없다는 이유를 하나 더 붙여서 또 패배자로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현재의 교회 상태가 공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어서 사람들을 패배자로서 단

죄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롬1: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합2:4절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해 인간이 올바르게 보일 수 있는 반응 방식이 믿음이고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 또한 믿음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서 죄 사함 받은 것을 믿고, 또한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셨음을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천국이 나를 위해 예비 되었음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교리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나 자신에게 확신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믿음은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의 증거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는 삶이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유보 없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즉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교리를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교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도록 해주는 길에 불과합니다. 그 교리자체를 스스로 세뇌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라면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증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없음으로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이었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절이 오히려 지금은 개신교를 뿌리 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오해가 생겨 이 말씀은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칼날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틴어의 Credo가 사도신경입니다. 이 말은 '심장'이란 뜻의 '꼬르(Cre)'라는 단어와 '드린다.'는 뜻의 '도(do)'의 합성어로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은 곧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내 심장을 꺼내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심장을 꺼내드

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은 성령께 내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것이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사실에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심장을 꺼내드린다'는 말에서 치명적인 오해를 벗겨내야만 합니다. 믿음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작용이라는 오해입니다. 믿음은 심장을 꺼내준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정신작용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자기 심장을 꺼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음의 공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걱정 불안 근심 허무 초조 두려움 시기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 생긴다면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돈에게 '마음 심장을 꺼내어 주었다'는 것은 내 빈 마음의 공백을 돈이 채워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돈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그 돈이 없어지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허무하고 살아갈 기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정신작용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내 마음을 꺼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심장을 꺼내 드릴 테니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데카르트는 믿음을 경시하고 이성을 중시한 사상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생각함에 내 심장을 꺼내 주어서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함이 데카르트의 존재 근거와 이유가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데카르트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할까요?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로 불리는 슐라이어마허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또한 칸트의 영향을 받은 학파에 속한 신학자들에게서는 실천이성이 곧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의 도덕성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업가에게는 이익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는 수익을 남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전부인 엄마에게는 자녀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는 자녀를 형통하게 양육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연예인들은 '나는 인기를 얻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 하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듯 믿는 것은 '내가 나의 심장을 꺼내어 당신께 드리겠으니, 당신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

옵소서. 당신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활동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생각함을 붙잡거나 감정을 붙잡고 수익 혹은 자녀를 붙잡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없고 다만 그렇게 믿어질 뿐입니다. 똑같이 훌륭한 학자라도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한 반면에 슐라이어마허는 감정을 중시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채택된 것을 손에 얻기 위해 추진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각과 의지가 되어 그 다음 단계로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믿음의 단계에서 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돈이 아닌 예수님을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존재의 근거로 받아들였을까요? 왜 나는 감정이나 생각 혹은 자녀나 수익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끌려가며 마음의 공백을 세상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 준다.'는 것은 그것이 곧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믿었다는 것인데, 그럴 때에 기쁨과 만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의 공백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 기쁠 것이고 돈이 없으면 슬퍼합니다. 인기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기가 주어질 때에 기쁠 것이고 인기가 없으면 걱정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기쁠 것이고 없으면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해놓고 교리로서 스스로에게 되 뇌이며 확신시키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자식이 잘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슬퍼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지만 진짜 기쁨과 슬픔의 이유는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파괴의 근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에는 반드시 '오직 기쁨으로'라는 말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기쁨으로'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왜 돈이 없다고 슬퍼합니까? 예를 들었던 동반자살을 한 가족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교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고 쫓아갔던 삶 자체가 이미 실패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참 성공은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결국 이 경제적 실패가 욥의 경험을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붙들려 있던 온 가족의 마음을 돈을 떼어냄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머리카락 하나 만큼의 빈틈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끔찍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지탄을 받았는데 교회에서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실패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딸들이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남학생들이 쳐다보고 합니다만, 아빠가 돈벌이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 별수 없다고 하면서 애들까지도 느낍니다.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까?

본문 3: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선민의 나라 남 왕국 유다가 성전까지 깡그리 초토화 돼 버릴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이제 망할 것이 정해졌으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라고 하는데 희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절망을 기다리고 망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상태가 주어질 것임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뼈가 썩는 아픔을 느끼고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 떨린다고 합니다.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나라의 부강이 곧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합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합니다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추구하는 모든 가치 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밭에 먹을 것도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믿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로서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행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직분을 따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관계가 일방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오 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에 참여함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작용이 내 마음의 작용으로 옮겨 오는데 이게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기쁨으로'라는 말로 확인되어야 참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여전히 자식의 형통으로 기뻐하고 불통으로 슬퍼합니다. 승진으로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가 돈 벌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슬퍼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허락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신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가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정죄를 당하고 동반자실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동반자살을 계획하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인들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되면 교회식구들 불러다 밥을 사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감추기 때문에 아무도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대화중에 자식 얘기가 나오면 말을 다른 데로 바꿉니다. 자식의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께로 나갈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처럼 이 세상적인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떼어내시는 아픔을 주시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절호의 기회들을 자살의 기회로 바꾸는데 무서운 얘깁니다. 극단적이지만 방향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상황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난 채 브레이크가 고장 난 교회로 계속 달려가는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개혁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절의 이해를 ‘오직 기쁨으로’라는 말로 개혁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무엇으로 기뻐하고 누구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공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처럼 귀하고 귀한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복된 말씀에 대해 얼기설기 붙어있는 지방덩어리와 같은 잘못된 오해들이 ‘오직 기쁨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잘라져 나가고 오해된 개념이 개혁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